



다. 肢體가 肥大한 便이며 直立한 두 발 끝은 露出되었었고 발가락의 彫刻도 뚜렷하다. 法衣는 通肩이고 衣文은 雄健한데 두 팔을 거쳐 兩側面으로 벌어졌으며 그 사이 前面에는 袈裟가 걸려 있다. 右腕은 안쪽으로 누르며 左手는 胸前에 들어서 長指를 拇指에 꾸부러 持物이 있는 듯하나 確實치 않고 背光은 右側에 頭光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確然치 않다. 手, 足 等에 部分的인 畸形的 彫法을 보이니 巨大한 立佛에 잘 調和되어 있어 衣褶이나 恩威 있는 尊容 및 그 手法으로 미루어 보아 前述한 冠峰의 坐佛과 同代的 것으로 推定되었다. 保存은 良好한 便이나 台石이 強固치 못하여 이에 對한 앞으로의 對策이 重要할 것이다.



向하였다. 머리는 削髮하고 肉髻는 앞은 便이다. 肩間에는 白毫가 없고 두 볼은 豊美하여 口唇에 若干의 微笑를 지은 것과 잘 調和되어 顔容에 慈悲가 넘친다. 兩耳는 길게 내려졌고 목이 바타서 三道가 뚜렷하지 못하다.

以上 兩佛은 共히 傑作品으로서 各其 東과 西를 向하였는바 그 位置를 볼 때 雲上界에서 俗界의 衆生을 굽어보고 있는 듯한 眺望이 絶佳한 山頂을 擇한 新羅人의 叡智에 感嘆하였다.

(註) 本誌 第二卷 第二號에 紹介되었음

三、 이제까지 八公山의 佛蹟을 本紙에 連載 ①하여 數個處를 紹介하였는바 이 外에도 內院庵 ②에 羅末作品으로 推定되는 拜禮石 一石이 良好하게 保存하였었고 또 以外 各處에도 許多한 遺蹟 遺物이 있었으며 山峰 數個處에 石塔材 等이 倒壞되었었다. 그러나 이것은 筆者의 初踏에서 發見된 것을 列擧한 것 뿐이니 앞으로의 철저한 再調가 더욱 期待되는 바이다.

註 ① 本誌 自第一卷 第五號 至第二卷 第三號에 連載

② 桐華寺에 屬한 庵子로서 桐華寺에서 約一時間 八公山主峰을 向하여 올라간 곳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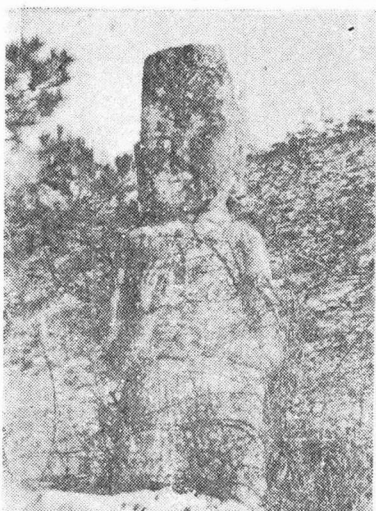
牙山里 所在 石塔 및 石佛像

鄭 明 鎬

忠南 牙山郡 靈仁面 牙山里 邑南南東約六〇〇m되는 靈仁山支脈下에 鄉校가 있고 그 左右에 峽谷이 있어 各各 寺址가 있다. 左便 溪谷에는 北廣하고 三面이 山으로 둘러 있는 地帶에 新寺인 觀音寺境內에 三層石塔 一基와 如來像 및 高麗代의 礎石이 있고, 또 右便溪谷의 寺址역시 北廣한 데 露盤 及 覆鉢을 兼備한 五層石塔과 一軀의 佛像이 遺存한다. 이 두 寺址에 對한 由來는 傳하여 있지 않으나 東國輿地勝覽 牙山縣 佛宇條에 보이는 諸寺刹名中 現存하여 있는 刹名은 오직 神心寺(考古美術 第二卷 一號) 뿐이며 其他 刹名은 모두 廢寺된 것을 보면 勝覽編纂時까지는 있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前者 觀音寺는 數年前 僧侶 林茂가 再建할 때 불친 寺名으로 原寺名과는 아무 關聯이 없다. 이 塔은 倒壞된 것을 現 大雄殿앞에

移建한 것으로 原位置는 大雄殿앞 우물옆이라 한다. 本塔은 아담한 小塔으로서 地覆石上에 二段의 『물당』이 있고 다시 四枚의 面石으로써 單層基壇을 이루고 있다. 이 面石中 一枚는 缺失되었으나 隅柱와 撐柱를 兼備하였다. 甲石위에는 欄干받침이 있어 一層塔身을 받고 있음은 麗代에 流行하던 特徵이다. 屋蓋받침은 一·二層이 四段、三層이 三段이다. 三層屋蓋石 頂上에 寮柱圓孔(徑八cm)이 있으며 깊이는 結氷되어 알 수 없다.

佛像은 東向하였는데 술어져 있었던 것을 再建한 바로 身高二·四m



肩幅六八cm이며 舟形光背(高三·六m 幅一·二四m)에 浮刻된 如來立像으로 法衣는 通肩이며 右手는 아래로 내리고 左手는 胸部上에 들어 長指를 구부려 拇指에 대고, 兩耳는 길게 늘어져 있으며, 光背에는 아무런 彫刻이 없다. 또 鄉校 右便 溪谷의 寺址에 있는 五層石塔의 下層基壇 中石은 四枚로 隅柱와 撐柱를 刻하여 二區로 分하였다. 上下甲石上面에는 單瓣의 覆蓮(幅一二cm 長二一cm)이 둘러 있다. 上層基壇 中石은 또한 四枚로 東東南面에는 隅柱와 撐柱로 역시 二區로 分하였다. 第一塔身 正面에 陰刻한 戶形(高二八·四cm 幅一九·二cm)에는 자물쇠를

浮刻하였고 屋蓋받침은 一·二層이 三段 三·四·五層이 二段으로써 五層屋蓋上面 擦柱圓孔(徑六cm)과 覆鉢上의 擦柱圓孔은 貫通되어 있다. 이 塔은 各屋蓋의 縮小率이 적어 比較的 安全感이 없는 塔이다. 東東南向한 이 塔의 正面은 山脈으로 가로막히고 塔前方은 斷崖로 그 밑에 溪川을 이루었고 南과 西方은 傾斜진 언덕이며 北廣하여 塔의 位置上 伽藍配置原則을 어기고 法堂側面에 塔을 建立하려 하였는지 或은 塔後面에 壇을 이루어 法堂을 세웠는지 次後 再調査를 要하는 問題이다.

또 塔 北方約 一五m地點에는 西向한 石造立像이 遺存하여 있다. 頭部에는 圓筒形冠 같은 것이 있고 右手는 胸部에 올리고 寶珠를 長指와 拇指로 잡고 左手는 腹前에서 外掌하여 손에 寶珠를 올려 놓았으며 兩腕은 裸形이다. 腹部以下에는 線으로 衣褶을 刻하였다. 全高는 二·六五五m며 肩幅은 八七cm다. 以上 兩寺址의 諸遺物은 모두 高麗作品으로 同時代作으로 推定된다.

觀音寺 三層石塔

地覆石幅 一・四八五m 塔總高一・三九五m 基壇高七八cm 逸名寺址
五層石塔 下甲石幅 一・八五五m 塔總高三・九八m 上層基壇高七三cm

(코-스)

- ① 溫陽驛下車↓驪時行岬-스↓牙山邑下車↓兩寺址
- ② 驪時下車↓神心寺↓靈仁山越↓兩寺址

百濟土器의 數例

洪 思 俊

百濟土器는 年來로 扶餘를 中心하여서 許多히 發見된다. 그 中에서 가장 異例의 數種을 들어 아래에 紹介한다.

(가) 西紀一九五二年 三月 二十六日 扶餘博物館舍西側에 小井을 開鑿 하던 中 地下二尺餘에서 瓦片과 함께 出土된 것이다. 色은 灰白色이며 器質土가 매우 稠아 보인다. 그 形態는 靑銅鉢의 上部에 淺(淺)을 부친 것 같은데 그 전이 圖面(가)와 같이 左右에 만 있되 同心圓으로 되어 있다. 高八・六cm 口徑一四・四cm

(나) 西紀一九六〇年 二月 十八日 扶餘 開城專賣廳 人蔘製造工場敷 地를 (東南里) 整地할 때에 地下三尺餘에서 發見된 것이다. 色은 灰色器 質土는 稠은 粘土(扶餘邑附近)로 되었다. 形態는 器口가 넓고 高가 얇으며 그릇 굵이 器體에 比較해서 매우 얇다. 一見해서 家庭에서 使用 하는 甗甗반같이 되었다. 高五・五cm 口徑二五cm

(다) (1) 扶餘邑 鹽倉里에서 一括遺物로 西紀一九六〇年 十二月 七日 入手한 것이다. (A)는 扶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니 (B)는 보기 드문 壺로 안다. 口邊 아래 肩部에는 송곳같은 것으로 鋸齒紋을 一條 돌렸으며

腹部 아래에는 凹帶가 鋸齒紋과 平行해서 돌러 있다.

- (A) 高一〇・三cm 口徑一七・四cm
- (B) 高九・二cm 口徑一〇・一cm

그런데 發掘當時의 狀況은 (A) 器에 (B) 器를 올려놓고 다 시 (다) (2)의 (D) 器를 덮어 의뢰 있었다고 한다.

(다)의 (2)같은 鹽倉里에서 出土되었으나 發見地點은 다르고 (C) 器를 (D) 器로 덮어 의뢰 있었다 한다.

(C) 器는 黝黑色의 器體에 比하여 口部가 적다. 家庭에서 使用하는 藥단지 같은 나 腹部가 몹시 불룩하다. 큰 瓶의 頭部를 자른 모양 같다. 肩部에 三條의 平行 凸帶가 돌러 있고 腹下部에 또한 同間隔의 凹帶가 돌러 있으며 器底에는 鱗形같은 細目이 雜多히 彫刻되어서 있다. 推測컨대 加熱에 必要한 措施로써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겠다. 高一三・六cm 口徑一〇・四cm

以上 (다)의 (1) (다)의 (2) 器들은 生時에 使用한 것을 墓에 副葬器로 넣을 적에 큰 그릇안에 작은 것을 차례로 겹쳐 놓고 작은 그릇으로 덮었던 것으로 推想된다.

